

영화 보고...

chora

영화 보고... 어떤 표현을 해야할까?
침울했다... 놀랐다... 그리고 시원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하여간, 라넷이 만든 영화와 뭔가 통했다. 정말이다.

글고 웃긴 부분도 상당히 많았다. 특히 '정리해고' 소식을
"강석인가, 김혜영인가... 이해영인가..."라고 말하는 이준마
말하는 대목에서는 한 번 볼 때는 강 지나쳤는데 두 번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웃겼다. 넘버 쓰리 송광호보다 더 품위있
게... 물론 내용은 몹시 침울한거지만.
그런데 사실 가장 근원적인 층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옆에서 보면, 강 불쌍하지만, 그 내부에서 보면 존나 웃음도
많고 그렇잖아? 그거 잘 포착한 거 같다.
특히 단식투쟁 할때 먹는 이야기 하는 대목...
"아재미 좋아하잖아?..." "내일 메뉴는..."
그 이준마가 화장실 갈때 옆허가는 대목도 있지만.

글고..영화가 주는 메세지는 먹물식으로 말하자면 존재적
충격을 주는거 같다. 나는 백수인데...남 이야기 같지 않으면
서... 뭐랄까... 나는 그 해 여름 뭘하고 있었고, 또 아지매들
그렇게 싸우고 있는 지금 뭘하고 있었고... 정치꾼들과 '중재'
에 앞장서고 사고 하려는 생각들.

노무현? 그리고... 내가 만일 노조위원장이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노무현같은 사람 오면, 악수하고 그러는 거, 나도
그럴 거야 하는 생각까지 하니까, 문제는 단순히 현자노조지
도부님들이 나쁜새끼라는 것을 넘어서는 것 같다.
힘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노동자님. 여리고 착하게 생긴 분인데... (솔직히 자기
가 "나는 착해서, 두들겨 부수는 거는 안함니더"라는 분보다
착하게 생긴^^) 곰곰히 생각해보니, 참 무서운 거였다.

그분은 "우리가 십년 이십년 일한 기초가 공구다. 공구를 모
아서 불태워버리면 현대자동차 멈춘다. 그럼 정리해고 못한
다"라고 하셨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그럼 나라는 어떻게 되냐'란 생각
이 들었다. 그리고 마음 내부에서 갈등했다. 그러니까...그런
지점이 내게 존재적 충격을 주는것 같다.

"노동운동 그런거, 아닙니더"라는 말이 옳은데, 그 말은 가장
약자 입장에 서는 거다. 헌데, 파업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같이죽자'는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만일 회사가 문을 닫는다
면 모든 노동자들은 우에 되노... 라거나 국가경제를 생각하
는 내 존재방식, 그리고 사유방식...

투쟁을 하더라도 "폭동"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노조위원장의
말을 화면에서 볼 때 내 자신은 저 씨발놈이라면서 실은 내
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오지 않았나?

노동운동은 그런거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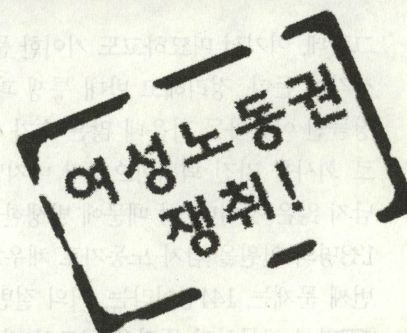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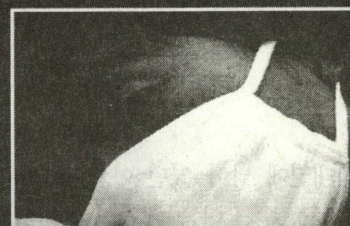
힘은 대중한테 있고, 실제 자본가들이나, 나쁜놈들은 그걸
이용해서 먹고 산다는 너무나 단순한 사실. 착하게 생긴 노
동자님은 그걸 말씀하신 듯 하다. 공구 모아 멈추고, 프레스
기 절단내면, 니네는 망한다. 그런데 니네는 니네 풀린대로
하는가, 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옳지 않은가?

그런데 백수인 나는 왜 대면에 <비폭력> <국가경쟁력>과
같은 단어, 혹은 <회사가 망하면 나라도 망하고 노동자도 망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그 부분... 갈등하는 지점을 정확
히 건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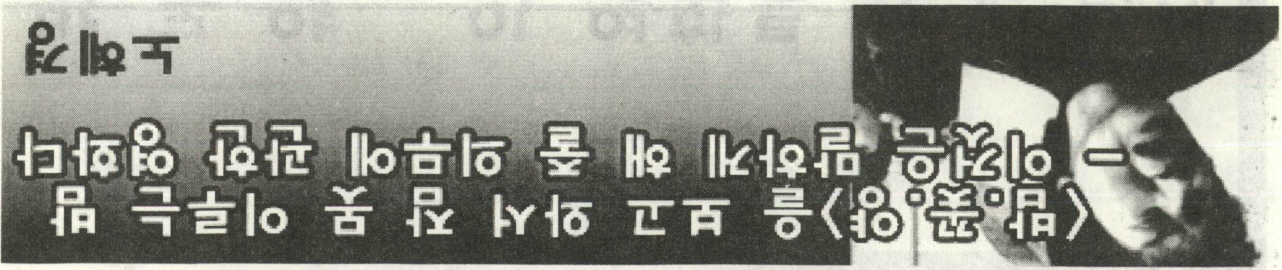
이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는 실은 힘이 있지 않나. 밥 안해
주면 머해먹고 살건가. 기계를 안움직이면 니네거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그들이 '국가'고 그들이 경제인데 그들 모가지
를 쳐내면서 말하려고 하는가.

노무현씨 얼굴, 쭈글쭈글한 얼굴, 그리고 그 성실한 얼굴,
인간적인 매력 뒤에 보이는 '입장'이 느껴졌다.
김문수 이씨발놈아 노조팔아먹은새끼...라고 욕하는 노동자,
그리고... 노사정합의에 대해 토론할 때 먹물같은 분이 나와
"찬성"한다고 하자, "니가 뭘 투쟁했는데 새끼야"라는 대목
이 참 인상에 남는다. 아래로부터... 충격이다.
중재는 일을 망치고 대표에게 맡기고 있으면 스스로 가진 힘
마저 무력화시킨다는 메세지도 내게는 강력하게 다가왔다...
라넷팀...감사해요...

밥.꽃.양. 이 영화를 보고 나서



4.30/May Day의
여성주의적 실천을 위한
112주년 맞이 여성행동위



노혜경

〈바람꽃.양〉을 보고 와서 자문 자문 이글은 뭐
=이런등 름하게 해 롭 의무에 관 영화다

자신에게 온가족의 행복과 안정이 담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그리하여 정리하고 인원을 27명으로 축소하는 데 성공한다.

27명.

최종협상 당시 투쟁대열에 남아 있던 이준미들의 인원이 276명이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 숫자에 어떤 비밀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영화에는 277명과 관련된 숫자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 숫자는 133과 144라는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노조 지도부는 회사측과 277명이란 인원수에 동의하는 도장을 찍었고, 해고 대상 인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아준미들이던 직장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해고대상에 올렸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직장을 노조가 회사로부터 인수받아 경영을 한다는 편법으로 직당 이준미들을 정리하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한다.

그런데, 여기서 미묘하고도 기이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리하고 반대 투쟁 과정에서 대부분 극빈가장들이던 이준미들 가운데 많은 수가 회유나 그 밖의 사정으로 회사를 자진 퇴직함으로써 마지막 단계에서 144명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발생한 첫번째 문제는, 부족한 133명의 인원을 단지 노동자로 채우게 되었다는 점이며, 두번째 문제는, 144명이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인원에게 277명이 근무하던 똑같은 규모의 바로 그 작업일을 시켰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건, 회사 직원이 아닌 하청이란 명목하

이 영화는 반드시 상영되어야만 하며, 우리는 모두 이 영화를 보여야만 한다. 우리가 모르고 저지르는 수많은 죄악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윤산인권영화제에서 사전검열 문제로 논란에 휩싸여 있는 영화, 〈바람꽃.양〉은, 간결하게 설명하자면 1998년부터 지금까지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식당이준미들의 정리하고 반대투쟁기이다.

이 투쟁에는,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에 대한 내 관념과 인식을 깨어버리는 참으로 중대한 요소가 들어있고, 그 요소들을 이 바로 지금 내 머릿속을 복잡하고 착잡하게 만들어 깊은 밤 한숨으로 지새우게 한다.

그 요소들은 다들 아년, 심지어 노동자들마저도,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희생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바람꽃.양〉에서 내가 본 노조 지도부는 그러했다.

이 영상보고서가 우리가 그동안 자도 모르거나 또는 고의로 외면해 온 지독한 진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대변하는 우리의 노동현상이 빠져 있는 불의의 틀을 가림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깨닫는 순간 나는 이 필름이 결코 상영되어야서는 안 될 근거편들이 되어버리거나 옳을까 하는 근심에 싸인다.

이 투쟁에는 대단히 특이한 모습이 보였으나, 어린이들을 원두로 온 가족이 파업에 동참한 것이다. 정리해고가 사업주에게 경영합리화의 한 손쉬운 방법인지라도 막상 노동자

에 압금을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33과 144. 급과 여로 나뉘어 이 숫자의 운명은 오래지 않아 또 한번 갈린다.

133명, 이 미묘한 숫자는, 경기가 회복되고 회사가 정리하고 된 인원을 복직시키면서 제시한 인원과 일치한다. 숫자의 미추일까? 아니면 은밀한 약속의 소산일까? 정리하고 있었던 133명의 남성노동자들만이 복직을 하게 된 것도 우연일까? 아니면 예정된 수준이었을까?

과 두려움에 혼란을 느낀다.

이리하여 이준미들의 복직투쟁이 다시 시작된다. 최소한, 노동조합 지도부가 회사측으로부터 이 144명의 이준미들을 연젠가는 복직시켜주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아달라는 이준미들의 요구는, 회사의 꾀전에 가기도 전에 바로 노조 지도부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준미들은 마침내 단식투쟁을 결의하고, 한 명씩 한 명씩 목숨을 건다. 대부분의 이준미들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2시까지 어떻게 안을 내느냐는 대표의 비통한 하소연에 노조 간부들의 열렬한 비이어나와 열사로 일그러진다.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2시를 넘기는 것은 불가하다는 그들의 발언에 마침내 외면하던 이준미 대표들은 울부짖고 만다.

이준미들은 밤을 하느 사람이다. 그런데 그 밤은, 가족들을 위해 포클린 앞치마를 여야빠게 두르고 지어내는 양증만은 법이 아니다. 지들이 원미타가 넘는 양력술에 삼으로 온 몸을 던져 자아가며 국을 끓이고 밥과 반찬을 하고, 전채치즈를 배식을 하고, 손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속도로 천천히 하며, 틀들이 교대교대로 식당 뒷편 마당에 주저앉아 자신들의 자식을 해결해야 하는 엄청난 노동이다. 새벽 한 시에도 이준미들의 노동은 계속된다. 아저씨 시간, 공장 전역에서 흡사 탈리기 경주라도 하듯 합컷 뛰어 노동자들이 서

만으로 물려드는 광경은 기이하고 침묵한 느낌마저 준다.

한 여성은, 그러한 고통스런 노동 끝에 집으로 돌아가 다시 남편의 성적 요구에 시달리는 현실을 털어놓으며 울먹인다. 여자들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그녀의 아픈 눈물 사이로 다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잔혹한 남자들을 향한 남성 분노가 삼장을 휘젓고 사라지는 것을 숙수무책으로 견딘다. 이 보고서의 전면에 녹아흐르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감겨있는 문없는 여성에 대한 멸시와 조소, 차별을. 말하고 있는 여성이 마이크를 빼아서 자기 말을 늘어놓는 노조 간부, 식당아줌마 대표가 발언하는 동안 비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노조위원장과 노조집행부를, 그녀가 연설했던 동안 끊임없이 일어나던 소란스런 잡음들, 아무도 진심으로 끼어들지 않았고, 아무도 진심으로 그녀들을 염려하지 않았다. 그녀들이 낮고 낮은 여성들이었기에.

영화의 시작부분을 오래 점유하는 그녀가 남편이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며 이혼간이라고 하더라는 말을 전할 때 나는 그녀와 함께 울었고 그러한 그녀가 그래도 내 직장이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겠노라 다짐할 때, 나는 마음속으로 그녀를 가만히 안았다. 형남요,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요!!!

또 하나의 아픈 장면이 그 위에 오버랩된다. 소위 가족동반 투쟁이라는 새로운 투쟁의 한 복판, 식당물에 내가 벗겨버리는 채소를까지 연아다가 산시세때 밥을 해낸 이준미들의 모습. 단지노동자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지치지 말고 투쟁에 동참하라고, 몸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만들어 먹이던 그녀들의 모습은 투쟁의 물라온 정공이라

이 영상보고서의 제목은 〈바람꽃.양〉이다. 밥하는 이준미를 이기에 찬대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성공으로 이끈 숨은 공신들, 투쟁이 낳은 꽃들, 그러나 마침내 회생의 제물로 바쳐진 무죄한 양이 된 그녀들.

이 영화는 반드시 상영되어야만 하며, 우리는 모두 이 영화를 보여야만 한다. 우리가 모르고 저지르는 수많은 죄악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그러나, 저 갈라지고 쪼아터진 목소리들을 듣는 것은 그들

의 말한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인간됨을 위한 가장 시급한 의무이다.